

인간과 하천

• 3

River & Culture



(그림 1) 양화교 인공폭포



김 대 흥 | 오마이뉴스기자
(bugulbugul@empal.com)

[자전거 여행]

한강 지류 안양천을 달리다

길이 34.75km의 긴 하천. 경기도 과천시 남서부 청계산에서 시작해 학의천-목감천과 합치며 몸집을 불린 다음 한강과 합류하는 강, 안양천이다.

이 긴 강을 술하게 다녔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흥제천에서 한강을 건너면 가장 가까운 강이 안양천이기 때문이다. 안양천변 근처에서 약속이 종종 생긴 까닭도 있었다.

안양천 자전거 길에 들어가는 길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강 남쪽 길을 타고 서쪽으로 달리다 성산대교를 지난 뒤 곧장 안양천과 만나는 길이다.

한강 북쪽에서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산대교를 건너야 한다. 대교 위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 뒤 보행로를 따라 건너야 하는데, 오른쪽 길을 타고 가야 한다. 왼쪽 길을 타고 가면 차도 역방향 길을 잠시 거친 뒤 한강 자전거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성산대교 동쪽방향 보행로를 타고 가다 길이 끝나는 곳엔 양화교 인공폭포가 있다.

높이 15m, 폭 98m로 규모가 제법 크다. 물줄기를 보고 있으면 더위가 쉽게 가실 것이다.



〈그림 2〉 안양천 고수부지 갈대숲

폭포에서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면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난다. 자전거 경사로가 있어 끌고 내려가기가 쉽다.

내려가면 한강과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조금 들어간 곳과 만난다. 1분 정도 북쪽으로 달리면 안양천과 한강 합류지점이다. 거기서 보이는 곳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다. 과거엔 난지도였다.

합류지점에 잠시 쉬어가는 자전거인들이 많다. 자전거에 펄크가 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곳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슬하게 머무는 자전거인들이 도움을 주곤 한다.

안양천 여행은 여기서부터. 다리를 건너서 달려도 되고, 여기서부터 바로 달려도 된다.

안양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울창한 풀들. 사람 키보다 더 높다. 보기에 아주 운치가 있다. 바람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갈 때 만드는 풍경도 그림이다.

바람 소리도 싱그럽기 그지없다.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작은 날벌레들과 부딪히는 일. 몇몇 지역에선 갑자기 먼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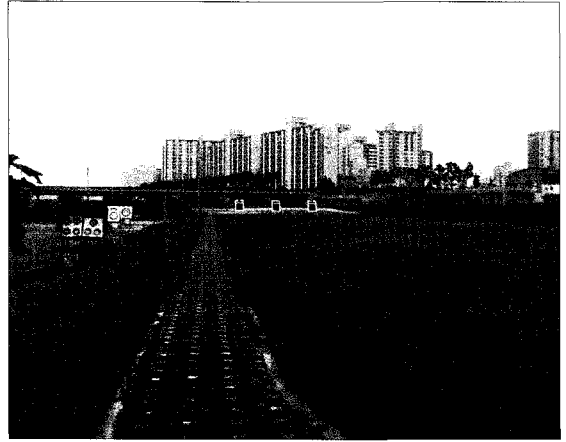
의 날벌레 떼들이 나타난다.

그수가 어찌나 많은지 입을 잠깐이라도 벌리면 수십 마리가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다. 자주 경험하는 이들은 “단백질 섭취한다”면서 자위하지만 씩 유쾌한 일은 아니다.

조금 달리다 보면 무척 높은 빌딩숲을 보게 된다. 그 건물이 바로 목동 하이패리온이다.



〈그림 3〉 영등포구 쪽에서 바라본 안양천 전경



〈그림 4〉 영학정 전경 및 국궁장터(출처: <http://cafe.daum.net/daedeokjeong/LWIS>)

서울에서 63빌딩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소식에 조금 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고층 건물 순위에서 여의도 63빌딩은 249m로 3위다.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A동 타워 A가 256m(69층)로 2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G동 타워 G가 263.7m로 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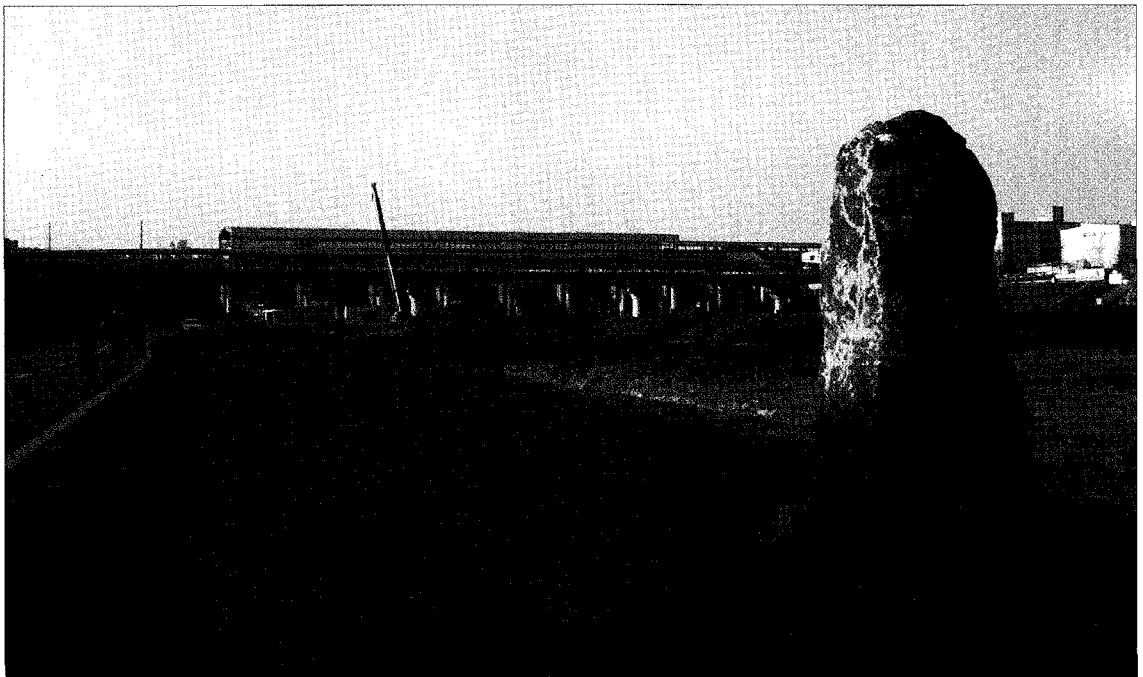
목동아이스링크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천장에서 불이 나 피겨선수 김연아의 공연이 무산된 장소다. 목동 주변은 밤에 봐야 운치가 있으니 낮엔 슬쩍 보고 지나치시길.

경치란 게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다르다. 계절에 따라 달

라 보이고 날씨에 따라 달라 보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 보인다.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 보인다. 상류로 갈 때 동쪽 길을 달렸다면 하류로 돌아올 때는 반대편 길을 달려보길 권한다.

잠시 뒤 언덕 위에 정자가 보일 것이다. 영학정이다. 달리는 데 재미가 붙었더라도 잠시 멈추고 정자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길 바란다. 정자에서 내려보이는 강 경치가 괜찮다.

아래 보이는 곳은 양궁/국궁장이다. 화살이 시원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양학정 부근 신정잠수교 부근엔 인공 산란장이 있어 큰 물고기가 펄쩍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끔



〈그림 5〉 고수부지 위의 돌무더기

씩 꽤 큰 물고기가 필쩍 뛰어올라 구경꾼들을 감탄케 만든다.

돌무더기도 재밌다. 처음엔 지성을 드리는 목적인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꽃밭을 가꾸거나 밭을 만들면서 골라낸 돌을 쌓은 것이었다. 버리는 돌을 저렇게 쌓아놓으니 제법 이쁘고 그럴 듯한 장식물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란 쓰임새에 따라 작품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달리다 보면 하천 하나 살짝 밭을 걸친 걸 볼 수 있다. 도립천이다.

안양 시내에 들어서기까지 안양 천을 건널 수 있는 보행자/자전거다리는 네 개 정도다. 안양천 시내까지 거리가 20km 정도 되니까 대략 5km에 한 개 꼴인 셈이다.

먼저 눈에 띄는 다리가 뱀쇠다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리 옆에 있는 표지판에 보니 '뱀쇠다리'라 돼 있다. 이름이 독특하다. 인근 마을 이름이 뱀쇠마을(현 광명시 철산1동)이었다.

당시 뱀쇠마을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사람들이 안양천을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콘크리트 다리가 바로 뱀쇠다리. 당시 농촌이었던 광명시와 도심인 서울 영등포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했다고, 부근에는 주막도 있었다고 표지판에 돼 있다.

하안교를 지나 더 달리면 시흥대교다. 주위에는 시흥역, 시

흥빛물펌프장이다. 동네는 시흥1동이지만, 경기도 시흥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는 서울시 금천구다. 과거 시흥시가 얼마나 컸는지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서울과 주변 도시들이 커지면서 시흥시 땅을 조금씩 가져갔고 시흥시는 쪼그라들었다. 시흥역 주변엔 역 바로 옆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어, 하천 옆 도로까지 더하면 4차선 자전거도로가 된다. 세상에, 4차선 자전거도로라니.

조금 더 달리면 거리표지판이 나온다. 14.9km. 서울시 종점이다. 표지판 너머는 안양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안양천 끝을 보려면 아직도 멀었다.

안양천 옆에 '철새도래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잠시 뒤 좁은 나무다리가 보인다.

여기서 조금 더 달리면 '자전거가 좋은 사람들'이란 식당을 보게 된다. 올해 2월 21일 문을 연 자전거인을 위한 전문 식당이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가 차린 식당이다. 바깥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도난방지를 위해 안에서 모니터로 거치대 주변을 살필 수 있다. 그도 안심이 안 되면 안에도 세울 수 있다. 안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식당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즐겨 찾을 만한 종류다. 라면, 삶은 계란, 찌개를 비롯 생맥주



〈그림 6〉 뱀쇠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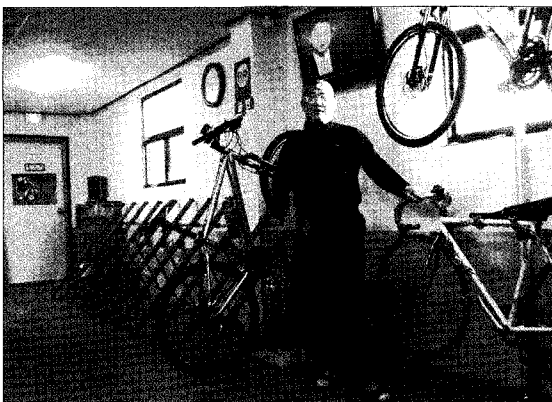


도 판다.

인근에 석수역이 있어 술 한 잔 마셨다면 지하철에 싣고 가면 된다. 수하물 규정에 따라 접이식 미니벨로만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점점 강폭이 좁아진다. 안양시내에 가까워진다는 증

거다. 안양교까지 이르렀으면 다리 위로 올라간 뒤 안양예술 공원에 가보시길. 국내 최고 수준 공공예술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



<그림 7> 자전거가 좋은 사람들 식당 자전거 거치대

글·사진 김대홍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3 때까지 (소년중앙)을 구독하였고 지금 까지도 책장 두 개를 만화책으로 모두 채워놓고 수시로 꺼내보는 만화광. 자전거 역시 네다섯 살 때 세발자전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강진, 거창, 강화도를 다녀왔고, 남해, 통영, 경주 등 남쪽 일대를 누비기도 했다.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편집기획팀 기자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이미 여행스케치라는 여행전문잡지에 수록되었던 바 있는 글이나 하천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어서 잡지사에 양해를 구한 후 하천에 대한 소개 글을 연차적으로 수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